

식탁 위에 편 서른 송이의 온기

불쑥 찾아온 손님처럼, 낯선 설렘과 가벼운 걱정이 집 안의 공기를 흔들며 들어섰다. 그들은 캐리어 두 개를 끌고 여행객처럼 나타났다. 쌀 한 포대, 김장김치 한 통과 참기름 깨소금까지 넉넉했다. 챙겨온 모양새가 마치 한 달 살기를 작정하고 온 이들처럼 야무졌다. 빈 도시락 통조차 주인과 함께 이 집의 식구가 되겠노라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두 달 전 남동생이 서른 해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를 새로 단장할 거라 했다. 살림은 컨테이너에 맡기고 올케와 함께 우리 집에서 한 달만 머물고 싶다는 청이었다. 전화를 받고 선뜻 거절하지 못했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기에 걱정이 앞섰다. 반백 년 넘게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이들이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며 지내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이 쓰이는 숙제였다. 문간방은 둘이 지내기에 비좁았고, 거실을 공유하는 일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투명 벽을 세우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짐 가방이 문턱을 넘는 순간, 걱정보다는 **핏줄이라는 단어가 주는 둥근한 책임감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다.**

고요했던 아침은 이튿날부터 **낮설고도 정겨운 소란**으로 깨어났다. 동생 부부는 한복을 짓는 이들이다.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에 **고운 옷감을 매만지듯 정성스럽게 서로의 하루를 다독이는 모습이 무미건조하던 내 일상에 기분 좋은 물결을 일으켰다.** 마을버스가 있어 출퇴근이 편하다 일러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새벽부터 분주했다.

동생 부부는 아침을 거르더라도 도시락만큼은 꼭 챙겼다. 시장 근처에서 한 끼 사먹는 게 편할 법도 한데, 그들은 굳이 정성이 들어간 밥을 고집했다.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둔 반찬을 담고, 갓 지은 밥과 국을 채우는 올케의 손길은 단순한 식사 준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주어진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단단한 생활 신조이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정갈한 예법이었다. 올케가 **달그락거리며 도시락을 챙기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창 하나를 발견했다.**

저녁이면 나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부엌의 주인이 되었다. 비빔밥, 돼지두루치기, 물메기탕을 번갈아 올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을 차렸다. 혼자일 때보다 셋일 때, 식탁은 비로소 완전한 온기를 뿜어냈다. 그 온기는 정이 되어 접시 사이사이를 흘러넘쳤다.

음식을 음미하는 동생 부부의 얼굴에는 가공되지 않은 행복이 서렸다. 남동생은 특히나 북스럽게 먹었다. 평소 내성적이고 말수 적은 사람이 갓 만든 요리 앞에서는 영락없는 아이가 되었다. 만식의 임신부처럼 배가 불러도 손가락을 놓지 못하는 그 순수한 **즐거움**을 보고 있자면, 함께 나누는 에너지가 내 안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남동생에게 ‘먹는 행위’는 단순한 허기 채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

맛을 추억하고, 익어가는 삶의 맛을 만끽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렸다. 화려한 선물보다 더 절실한 것은 서로의 고단함을 읽어주는 눈빛과 “수고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매일 저녁, 동생 부부의 기대 섞인 눈빛을 떠올리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도마 앞에 섰다.

어느 날은 동생이 퇴근길에 한우를 사 왔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나누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던 이가 미안함의 표시로 집 앞에 두고 갔다는 소고기 선물 이야기는 그들 부부의 욕심 없는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정말 맛있다”라며 맛장구치는 그들을 보며,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리모델링이 끝난 저녁,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울케는 나를 꼭 껴안으며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멀어지는 승용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 남겨진 따뜻한 난로 하나를 만지듯 가족 사랑의 참뜻을 되새겼다. 울케의 청량한 목소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여운처럼 길게 남았다.

삶은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듯 막막하지만, 서로의 밥상머리에서 나누던 그 따스한 눈빛만 있다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처음엔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라 생각했으나, 사실은 내 마음의 빈터에 정情이라는 이름의 꽃씨를 심는 시간이었다. 사랑은 거창한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어가는 국그릇을 다시 데우고 지친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는 사소한 손길 끝에 머문다.

서른 날의 동거가 남긴 온기는 이제 내 남은 계절을 버티게 할 든든한 밥줄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시린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이 식탁의 기억을 꺼내어 뽕뽕 언 마음을 녹일 것이다. 서로의 체온이 밥그릇 위로 겹쳐지던 그 짧고도 다정한 계절이, 내 생애 가장 눈부신 풍경으로 남았다.